

기억하고 행하여라.

일 시	첫째날, 저녁	소요시간 : 90분	장 소	실 내
대 상	중,고등부		제 작	청소년사목국
목 적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 재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간(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께 의지하며 신앙심을 키운다.			
준 비 물	예수님 복장, 초, 편지지(필기도구), 영상관련 물품, 흰색지점토, A4용지, 세족레 준비물(세숫대야,수건), 만찬을 위한 준비물(포도주,빵) 프로그램에 필요한 음악CD			

1.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 1) 캠프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신앙심을 되돌아보며, 예수님을 멀리했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 소홀히 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프로그램이다.
- 2) 교사의 연극적인 요소와 라디오 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 3) 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제시되는 자료에 나오는 성경 목상이 먼저 충분히 병행되어야 한다.
- 4) 성경본문의 내용을 각자의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는 내용이지만, 주제와 관련된 성화, 이콘 또는 영상화면으로 학생들의 목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프로그램 준비 전 상황

- 1) 본 프로그램은 야외보다는 실내 또는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 2) 방석이나 개인 돛자리 같은 물품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개인공간을 미리 준비해둔다.
 - (1)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학생들의 이름을 바닥에 붙여놓고, 옆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둔다.
 - (2) 학생들이 앉을 자리에 개인 초를 준비해둔다.
- 3) 프로그램을 할 장소는 촛불을 이용해서 조명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어둡게 한다.
- 4)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모든 준비물을 미리 갖춰져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와 도우미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도록 조심한다.

3. 주제 성경말씀 : 요한복음 13,1-20 세족례 / 루카 22,14-20 최후의 만찬

◆ 교사 해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어떻게 수난당하고, 고통을 겪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모습을 반성해보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동글게 또는 반원 형태로 바닥에 앉는다.
- 2) 바닥 가운데 검은색 천으로 둥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예수님 이콘이나 성화를(될 수 있으면 큰 것을 준비한다.) 놓고, 전체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 3) 예수님 역할을 할 교사는 미리 옷을 입고 준비해서 기다린다(이때 수건과 세숫대야, 물주전자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 4) 교사 해설이 나올 때는 음악을 틀지 않거나 소리를 줄여, 학생들이 멘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 해설

지금부터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참사랑의 순간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사랑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감사하며, 사랑의 잔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5) 목상용 음악을 든다.

◆ 교사 해설

모두 눈을 감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 있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곳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마련해준 소박한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밝음과 어둠을 구분해주는 몇 개의 초가 서로 얼굴을 비추어 줍니다. 한낮의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벽돌이었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돌 사이로 사막의 메마른 흄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듭니다.
어른거리는 촛불 사이로 다양한 표정의 사도들이 소박한 식탁주위에 앉아있습니다. 초의 불꽃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제자,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며 이리저리 살펴보는 제자,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무심한 눈빛의 제자, 너무나 소박하게 차려진 음식 때문에 투덜대는 제자, 평소와 다른 듯 한 스승의 모습에 불안해하는 모습의 제자,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제자.... 모두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6) 교사 해설이 끝난 후 잠시 목상시간을 준다(1분정도).

◆ 교사 해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 7) 교사(예수님 역할)는 한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해설이 나올 때 학생들이 앉아있는 가운데로 나온다. 대본을 읽는 교사는 예수님 역할 교사의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읽는다.

◆ 교사 해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걸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 8) 이미 프로그램 전에 만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대야, 수건 허리 묶는 끈,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 9) 이 성경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 역할의 선생님은 성경의 내용 그대로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성경을 읽는 교사는 예수님 역할의 교사가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읽어준다.

◆ 교사 해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 10) 지금부터 예수님 역할의 교사는 앉아있는 학생들 앞으로 가서 발-또는 손을 씻고, 닦아준다.
- 11) 묵상용 음악을 튼다.
- 12) 한 명씩 손(발)을 씻어줄 동안 스크린에 현시대의 사회적인 문제, 어려움, 고통, 학생들의 어려움, 고민 등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영상물을 준비해서 틀어준다.
- 13) 마지막 학생의 손(발)을 씻어주고 난 후 예수님 퇴장한다.

◆ 교사 해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남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세리이기 때문에 항상 혼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은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해본 적 없이 평생을 고기만 잡던 나를 먼저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죄가 되었던 나병의 흔적을 없애주신 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손을 원망하며 마음마저 달아버린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라지게 해주신 분...

지금 내 손(발)을 잡아주신 분... 그분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손(발)을 씻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 봅시다.

- 14) 침묵과 함께 묵상을 한다.(1분)

◆ 교사 해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남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세리이기 때문에 항상 혼자 있던 나에게 예수님은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해본 적 없이 평생을 고기만 잡던 나를 먼저 불러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죄가 되었던 나병의 흔적을 없애주신 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손을 원망하며 마음마저 달아버린 나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주신 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라지게 해주신 분...

지금 내 손(발)을 잡아주신 분... 그분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나의 손(발)을 씻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표정을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 봅시다.

15) 침묵과 함께 묵상을 한다.(1분)

◆ 교사 해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질 불쌍한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당신을 외면하고, 모른척하고 밀쳐버리는 나...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눈물 가득한 예수님의 두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을 잠시 바라봅시다.

16) 연민의 예수 그림 - 스크린에 띄운다.(2분)

◆ 교사 해설
 이제부터 누구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손(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께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고통...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나누어주는 편지지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아무 이야기라도 지금 예수님께 들려
 드립니다.
 편지를 완성한 학생들은 편지봉투에 넣어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초와 함께 가운데 천 위에
 올려놓습니다.

17) 학생들의 성찰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할 수 있다.

18) 학생들에게 준비한 편지지와 필기도구를 나누어준다.

시간은 전체적인 흐름의 진행을 고려하면서, 너무 짧지는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편지지 예시(이왕이면 파스텔 톤의 색지를 준비) - 그림도 삽입해서 예쁘게 만든다.

이름 (세례명)	
현재 나의 가장 큰 어려움은..	- 지금부터 적는 이 글은 여러분 자신과 하느님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현재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느님과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

- 19) 교사들은 학생들이 나오면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둥근 모양으로 초와 편지봉투를 배열한다.
 20) 마무리가 되면 퇴장했던 예수님이 다시 나와서 식탁에 앉는다. 식탁 위에는 큰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다. (포도주를 대신해서 포도 주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교사 해설
 *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1) 예수님 역할의 교사는 성경의 내용처럼 똑같이 행동을 취한다. 빵을 조금 떼어서 먹고 나서 학생들에게 그 빵을 돌린다. 학생들은 빵을 각자 조금씩 떼어서 먹으며, 옆 사람에게 전달한다.

◆ 교사 해설
 빵을 드시고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 22) 역시 포도주를 조금 마신 후 학생들에게 빵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한다.

■ 예수님 해설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23) 목상용 음악을 듣다.

◆ 교사 해설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나요? 어린 아기였던 나의 모습을..
 우리의 머리로는 기억해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동자는 그 기억들을 담아두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인 나를,
 깨어질까, 부서질까, 조심스러운 손길로 매만져주며, 귀에 물이 들어갈까.. 눈에 비누거
 품이 들어갈까...
 조마조마하면서 나를 씻기시던 부모님의 손길을...
 하물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은 어떠할까요....

나와 함께 빵을 쪼개어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말씀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몸과 피까지도 주었으니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 한 존재인 나를 만나려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
 인지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내 발에 물을 끼얹어 씻어주고, 나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고,
굳어 있는 단단한 근육들을 풀어주고, 부끄러워 자꾸 빼려고 하는 내 발을 부드럽게 매
만져 주시는 분....
그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24) 침묵과 함께 묵상을 한다.(1분)

◆ 교사 해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하느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는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 자체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만남과 축복과 하느님의 뜻
이 담겨 있는지,

이 아름다운 사랑을 느끼는 은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 교사들은 준비한 지정토(흰색)와 흰 A4종이를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준다.

26) 지정토는 비닐을 뜯어서 통속에 준비해 둔 후 (마르지 않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교사 해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지정토를 손에 꼭 쥐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이 지정토를 손안에 꼭 쥐고 충분히 주무릅니다. 둥글게도 하여 보고, 벽돌모양으로도
하여 보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따뜻한 체온을 이 지정토 안에 모두 넣는다는 마음으로
만집니다.

(잠시 기다린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로 점점 되돌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지는 지정토의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 초등학생, 아기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떠올리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경험한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단.. 이 기억을 찾아가는 여행에 나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기억여행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이 난다면..

그냥 그곳에 머물러 봅니다.

또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부모님, 식구들, 친구, 선생님, 여행을 갔던 때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했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 떠올려 봅니다.

27) 위 해설이 끝난 후 신호범의 “좋은 사람”(Original Ver.)을 틀어 준다.

좋은 사람 하나가 내 눈 속에 깊어서 / 눈 뜰때마다 미소 짓도록
마음 깊은 평화를 주죠.

좋은 사람 하나가 내 심장에 살아서 / 숨 쉴때마다 행복하도록
항상 내게 용기를 주죠.

나를 늘 부족한 나를 흔들리는 나를 / 언제나 아무 말없이 잡아준 사람
아직 말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죠 / 항상 그대가 내 안에 가득해요 //
좋은 사람 하나가 내 두 손을 잡아서 / 한 걸음마다 추억이 되어
웃는 일만 가득해지죠 //

나를 늘 부족한 나를 쓰러지는 나를 / 언제나 아무말 없이 안아준 사람
아직 말은 못했지만 난 그대 뿐이죠. 항상 그대가 내게 가득하죠
난 사랑할게요 그대를 영원히 / 나의 두눈을 나의 심장을 채운 사람
내겐 세상을 덮을 만큼 좋은 사람//

28) 음악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음향 볼륨을 상향조정한다.

◆ 교사 해설

이제 손안에 있는 나의 체온이 스며 들은 이 지점도를 이용해서
조금 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상황 또는
사람을 종이 위에 만들어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잘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계속 지점도를 만져도 됩니다.

작업이 끝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이 마무리할 동안 침묵 중에 기다려 줍니다.

29) 부활 11집 “사랑”(piano Ver.)을 틀어준다.

사랑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었다면 / 헤어진 후 느끼게 된다고/
시간이 흘러서 보고 싶어질 즈음 / 아픔 이라는 게 찾아오고
알 수 없는 그 어느날에 외로움이 다가오고 /
돌아가려 해보면 이미 멀어져가는 / 슬픈 얘기가 만들어지고
고마워요. 내 마음 속에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와줘서 /
지쳐가던 시간에 그대를 생각하면서 /
내가 일어설 수 있게해준..그대 /
사랑해요. 기억이 나요 / 언제나 간직할 수 있었기에 /
너무 늦었지만 너무 몰랐었지만 /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준
고마워요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아와줘서. 고마워요. //

30) 학생들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요한 14장 성경말씀 편집한 멘트를 잔잔한 묵상곡과 함께 읽는다.

■ 예수님 해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31) 침묵한다.

◆ 교사 해설

준비한 프로그램은 이것으로써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아서 계속 기도해도 됩니다.
피곤한 학생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늘은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서로 도와주도록 합니다.

32) 편지지 마지막 칸을 비워두는 의미는, 학생들이 신앙캠프를 마친 후 자신이 어려움이라고 적은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고 적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게 안내한다.